

No.20170118-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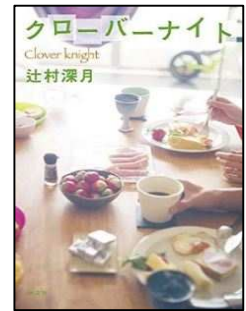
제목: 클로버 나이트(clover knight)

저자: 츠지무라 미즈키

페이지수: 337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1월 17일



<내용소개>

자녀교육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가정의 어두운 면을 남편·아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대중성과 참신함을 겸비한 미스터리 작가, 츠지무라 미즈키는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과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에는 사회의 세태에 휘둘리며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을 리얼하게 표현한 소설로 찾아왔다.

주인공 '츠루미 네유'는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35세 남성. 대학에서 만난 동갑내기 아내 '시호'는 브랜드를 창업한 CEO로 매우 바쁘다. 5세 딸과 2세 아들은 보육원에 맡기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네유가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첫 번째 이야기 <멋진 남편, 찾았어?>의 멋진 남편이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한 기혼 남성을 뜻한다. 소설 도입부로서 보육원 엄마들 사이에 멋진 남편으로 유명한 네유를 소개하는 한편, 엄마들 사이에 떠도는 불륜 소문을 다루며 여자들의 폐쇄적인 관계와 권력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두 번째 이야기 <호카쓰의 나라>는 보육원 찾기 활동의 준말인 호카쓰(保活)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치열한 사회상을 반영한다. 보육원을 놓고 겪는 부모님 세대와의 대립,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이 풍부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려진다. 세 번째 이야기 <수험의 성>은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유명 유치원에 입학시키려 애쓰는 부모들의 실태를 고집는다. 네 번째 이야기 <생일파티의 섬>은 유치원생 자녀를 둔 엄마에게 생일파티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인지 보여준다. 유명 유치원에 입학시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계층의 차이는 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셀럽이라 불리는 고위층,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 유치원의 실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편의 묘사는 때로는 경악할 정도로, 때로는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다. 마지막 <비밀 없는 부부>는 아내 시호와 장모의 이야기다. 장모는 외손자가 또래보다 말이 늦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이에 질린 시호와 자주 다툰다. 결혼한 딸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지배욕구와 왜곡된 의존은 부부에게도 위기로 다가온다.

이 글의 주인공이 엄마 '시호'가 아닌 아빠 '네유'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작가는 보육원 엄마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자라는 거리감을 지닌 네유를 통해, 주변의 여러 엄마들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각 소설마다 숨어있는 미스터리 요소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북돋아주는 양념 역할

할을 충실히 해낸다. 가족의 기사(Knight) 네유가 연속된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해질 것이다.

<목차소개>

Chapter 1. 멋진 남편(일과 과정 모두 충실한 남편), 찾았어?

Chapter 2. 호카쓰(保活·보육원을 찾는 활동)의 나라

Chapter 3. 수험의 성

Chapter 4. 생일파티의 섬

Chapter 5. 비밀 없는 부부

<저자소개>

츠지무라 미즈키

1980년 야마나시 현에서 태어났다. 치바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2004년 《차가운 학교의 시간은 멈춘다》로 제 31회 메피스토 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2011년 《츠나구》로 제 32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2012년 《열쇠 없는 꿈을 꾸다》로 제 147회 나오키 상을 받았다. 그 외 작품으로는 《벚꽃이 핀다》, 《슬로우하이트의 신》, 《가족 씨어터》, 《아침이 온다》, 《도쿄회관과 나》 등이 있다.

No.20170118-002

제목: 밝은 밤에 나가서

저자: 사토 타카코

페이지수: 28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21일



<내용소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4인의 인물들이 성장하게 되는 청춘 소설

작가 사토 타카코는 동화와 아동문학, 청춘 소설로 차례차례 나아가며 순수한 감성과 에너지,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건강한 성장소설을 선보여 왔다. 달리기를 소재로 한 대표작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와 일본 만담 라쿠고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말해도 말해도》는 각각 드라마와 영화로 영상화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신간 《밝은 밤에 나가서》는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 중요 소재로 등장한다.

소설은 주인공 '토미야마'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그는 고교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겪은 트러블이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한 사건을 계기로 대학을 휴학하게 된다. 가족들과 살던 집에서 나와, 푸르지 않은 바다가 있는 거리에서 자취를 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린다. 낮선 일과 동료들에게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토미야마는 늦은 밤 편의점에서 수상한 손님을 만난다. 키 150cm 정도에 기껏해야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 잠옷 같은 연한 핑크색 상하의에 배낭을 메고 잡지 코너로 돌진해 마지막 한 권 남은 '소년 점프'를 읽어 내려가다 음료코너를 서성이며 산만하게 군다. 그런데 그녀의 가방에 'کمب 배지'가 붙어 있다. 하나도 아닌 두 개나!

그 배지는 토미야마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아루코&피스의 올나잇 닛폰>의 굿즈다. 채택된 사연 중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은 사연의 주인에게만 주어지는 희귀하고 명예로운 선물이다. 수상자는 '가족'이라는 코너에서 자주 나오는 편인데, 진짜 가족들에게는 말 못할 일을 상담해주는 코너다. 토미야마는 그 배지를 받고 싶어 몇 번이고 사연을 보내 채택되기도 했지만 배지를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걸 두 개나 갖고 있는 소녀가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어른스럽고 수수하지만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주인공 토미야마, 매우 독특한 패션센스와 넘치는 재능을 소유한 소녀 '사코다', 온화한 성격으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의점 선배 '카자와', 토미야마의 고교 친구로서 역경에 강하고 타인을 잘 돌봐주며 소설 게임에 푹 빠져 있는 '나가카와'까지 4인이 심야 편의점에 모인다. 이들이 힘을 모아 작품을 만들어가는 1년 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좌절, 사람과의 만남, 꿈, 좋아하는 감정 등 청춘이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장편 소설이다. 주요

인물들과 조연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따뜻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아루코&피스의 올나잇 닛폰>을 중심으로 모인 토미야마와 친구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사이, 잔잔한 감동이 찾아온다.

<목차소개>

제 1장: 푸르지 않은 바다를 보고 있다

제 2장: 미스 사이코

제 3장: 두 개의 이름

제 4장: 그저 낙서일 뿐인데

제 5장: 엔드 오브 더 월드

<저자소개>

사토 타카코

1962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1989 년 <서머 타임>으로 월간 MOE 동화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이구아나의 방해되는 매일》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과 일본 아동문학자 협회상, 로보노이시 문학상을 받았고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로 서점대상과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성스러운 밤》으로 쇼가쿠칸 아동출판문화상을 받았다. 《말해도 말해도》는 <서적 잡지가 선정하는 연간 베스트 10> 제 1 위에 랭크 되었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No.20170118-003

제목: 알고 보면 무서운 데스크 워크

저자: 사사키 사유리

페이지수: 240

장르: 건강

출간일: 2016년 12월 15일



<내용소개>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이 겪기 쉬운 컨디션 난조와 질병을 예방한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 세계 2위다. 사무직이나 생산직이나 업무 강도가 높기는 마찬가지.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해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근무시간이다. 사무직은 적어도 주5일, 하루 8시간 이상을 책상에서 컴퓨터를 쓰며 일한다. 고정된 자세 심지어 잘못된 자세로 지내는데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저자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의 건강을 좀먹는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일부 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세계에 수 차례 발표 되었다. 이외에도 무의식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이 심각한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다. 앉아있다 보면 등에 힘이 빠져 자기도 모르게 구부정해진다. 이것이 고착화되면 새우등, 거북목, 목 위팔 증후군, 요통, 다리 저림 등 통증을 수반하는 근육 관련 증상들이 나타난다. 안구피로와 다양한 두통에 시달릴 수 있고 변비·치질·전립선비대증 같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체 대사가 급격히 둔해져 비만·당뇨병·심장 질환·뇌혈관 질환·만성신부전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 등 신경 질병에 걸릴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기에, 사무실에서 앉은 자세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준다. 어깨와 목의 근육 뭉침, 두통, 변비, 다리 저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동작들이다. 그 다음은 정신건강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웃는 습관, 원만한 인간관계, 일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는 방법, 명상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소홀히 보내기 쉬운 업무 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비결을 다룬다. 알람으로 억지로 깨는 대신 최적의 취침시간 찾기, 전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치주질환 예방, 출퇴근 시간에 근육 운동하기, 올바른 입욕 방법 등이다. 월경 전 증후군·자궁암과 유방암·수족냉증 등 여성들이 걸리는 질환의 종류와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근무 중 취할 수 있는 20가지 건강관리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는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자.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반복 동작을 취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할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이렇게나 많다니! 장시간의 사무업무 때문에 증가하는 질병 리스크

제 2장: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다! 예방 및 개선 스트레칭 방법

제 3장: "불안함과 초조함"이 퍼포먼스를 저하시킨다! 멘탈헬스 대책

제 4장: 건강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여성특유의 증상

<저자소개>

사사키 사유리

NPO 법인 예방의료추진협회 이사장, 건강관리사 사무소 '유우엔' 대표, 어른의 유치원 실행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아이의 아토피성 피부염, 육아지원부터 고령자의 생활습관, 대사증후군과 다이어트 지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3 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대한 일을 해왔다. 현재 다수의 강연활동과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연재 포함 30 개 정도의 칼럼을 집필하며 미디어에도 출연했다. 2014년에는 식생활 교육 그림책 《모두의 생명》을 공저로 펴냈으며, NPO 법인 예방의료추진협회 인정 예방의료지도사의 교재를 감수했다.

No.20170118-004

제목: 주부(主夫)가 되고 처음 알게 된 주부(主婦)의 일

저자: 나카무라 슈후

페이지수: 190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5년 04월 07일



<내용소개>

남성 주부 예능인이 전하는 가사와 육아, 가족, 사회에 대한 공감 백배 이야기

주부(主婦)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기혼여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남성의 연성화, 장기 불황과 실업률 증가, 성별에 따른 구분이 멀어지며 주부의 범위도 남자(主夫)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주부의 존재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다.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단념한 남성 숫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대두되었다. 남편(아빠)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책임진다는 인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활동 휴식기인 남자 연예인들이 살림을 맡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전업주부로 꽤 경력을 쌓은 남성들이 TV에 출연하거나 강단에 서서 자기의 삶을 소개한다. 미미한 추세이긴 하지만, 퇴직 후 가정으로 복귀한 50~60대 남성들 중에도 주부를 자처하는 이가 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주부 예능인'이라는 독특한 직함을 갖고 있다. 진학, 취직,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세 갈림길에서 매번 색다른 길을 택했다. 남자로는 드물게 가정 교육과를 전공했고 교단 대신 개그맨을 꿈으로 삼았다. 여자친구에게 집안일을 해주지 않겠냐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며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후 선배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주부 예능인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가사 및 육아, 전공 분야인 가정학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직접 체험한 주부의 삶을 '가사/ 육아/ 가족/ 남자 주부' 네 항목으로 분류해 설명한다. 책 속 이론, 현명한 주부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요 식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공감을 얻을 만한 팁을 제시한다. 남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3대 돕기로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일 보기, 감사의 뜻 표현하기를 주장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아무리 치워도 집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추억과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 이유식 먹이기는 아빠와 아이의 귀중한 스킨십 기회, 아침과 밤에 달라지는 토크 포지션, 배우자의 부모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족이 되는 과정, 주부에 대한 편견은 사실 여성들이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입된 고정관념을 재치 있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성별이나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집안 일을 해야 하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주부'다. 스스로 변화에 앞장 서 온 이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시대 가족과 가정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주부가 되어보자.

<목차소개>

서장: 주부가 되기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주부 예능인>

제 1장: 주부가 되고 처음 알게 된 <가사>

제 2장: 주부가 되고 처음 알게 된 <육아>

제 3장: 주부가 되고 처음 알게 된 <가족>

제 4장: 주부가 되고 처음 알게 된 <남자가 주부가 된다>는 것

종장: 주부가 되기도 계속 생각해야 하는 <주부>

<저자소개>

나카무라 슈후

1979년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다. 토호쿠생활문화대학 가정학부를 졸업했으며, 가정과 교원 면허(중·고), 보건교원 면허(중·고), 정리수납어드바이저 2급 자격을 갖고 있다. 2006년 M-1그랑프리에서 준결승에 진출하였지만 2010년에 해산하고 결혼을 계기로 가정 주부가 되었다.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사와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한편, 웃음 가득한 생활을 전하고 이벤트 사회,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 워크숍 강사, 잡지 연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일본에서 유일한 "주부 예능인"으로 불리고 있다.

No.20170118-005

제목: 프로 교사의 인재 육성 철칙 10

저자: 호리 히로츠클

페이지수: 189

장르: 교육

출간일: 2016년 02월 22일



<내용소개>

요즘 젊은이들을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 교사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운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깨달은 지식과 상상력을 '책'에 담아 후세에서 후세로 전달해 왔다. 일상에서는 부모 및 친구 사이에 중대하거나 사소한 습득 과정이 무수히 오가고,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도 급격히 늘어났다. 가르침을 업으로 삼은 교사들은 학교나 학원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검증된 지식을 알려준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은 경험한 시대가 다르다.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는 현대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

교원 인생 40년,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해 온 저자가 젊은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이 타이틀에서 전수한다. 나이가 들면 자기보다 연상인 사람은 점점 줄고 연하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 당연한 순리는 어른인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꼰대'를 양성해내기 쉽다. 어떻게 하면 좁은 시야와 아집에 갇히지 않고 젊은 세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의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가 이 책에 있다.

1장은 젊은이를 성장시킬 10가지 철칙에 대한 설명이다. 40세를 기점으로 보면 전반부는 오르는 길, 후반부는 내려오는 길에 비유할 수 있다. 오르는 길에 여러 자원을 풍부하게 축적해두어야 40세 이후의 인생이 편해진다. 이 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야 하는지, 인생 선배가 넓은 관점에서 지도해주어야 한다. 'HOW'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WHY' 관심을 갖는 사람의 차이를 인식하면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외에 최적기준과 만족기준, 승인욕구가 강한 40세 이하와 자율욕구가 강한 40세 이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과정과 결과,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인재 유형 등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유용한 조언들이 풍성하다. 2장에서는 철칙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의 예시와 노하우를 1페이지 단위로 소개한다. 교사가 갖춰야 할 5가지 자질, 젊은 세대와 심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킬, 잘못했을 때 효과적으로 꾸짖는 방법, 격려할 때 명심해야 할 2가지 포인트, 보다 엄격하게 훈련시킬 때 필요한 5가지 말을 차례로 제시한다.

가치관이나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차이 때문에 힘든 것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가르

쳐 새 시대의 인재로 키워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윗세대들도 고민에 빠진다. 요즘 젊은이들을 잘 다루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의 철칙을,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소개>

제 1장: 젊은이를 성장시키는 10가지 철칙

제 2장: 젊은이를 성장시키는 100마디 말

<저자소개>

호리 히로츠크

1966 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1991 년부터 삿포로 시의 중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연구집단 코토노와>대표, <교사력 BRUSH-UP 세미나>고문, <실천연구 스이린(水輪)>의 연구담당을 맡고 있다. <일본문학협회>, <전국대학 국어교육학회>, <일본 언어기술 교육학회> 등에도 소속되어 있다. 《교사력 입문》, 《교사력 피라미드》, 《학급경영 10 가지 원리·100 가지 원칙》, 《학생지도 10 가지 원리·100 가지 원칙》, 《스쿨 카스트의 정체 - 걸치레를 없앤 따돌림 대응》, 《중학생 통지표 소견란 기입문 예시》등 다수의 저서 및 편저가 있다.

No.20170118-006

제목: 아이의 물입을 방해하지 않는 작은 습관

저자: 야마모토 카오리

페이지수: 193

장르: 육아, 교육

출간일: 2016년 11월 18일



<내용소개>

‘문방구도감’ 저자의 모친이 공개하는, 쓰기·그리기로 아이의 창조력을 키워주는 비결

2016년 3월, 일본에서 발간된 《문방구도감》은 각종 문구류를 정확하게 해설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도감으로서의 이례적으로 판매 5만 3천부를 돌파했다. 이 베스트셀러의 저자는 12세의 평범한 소년, 야마모토 켄타로다. 방학 자유연구 과제로 제출한 내용을 서적화한 것이지만 알잡아볼 수준이 아니다. 1년에 걸쳐서 문방구의 특징을 세세하게 관찰했고, 그 내용을 손수 쓰고 그리며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완성해냈다.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주변의 문구류에 관심을 갖고 긴 시간에 걸쳐 꾸준히 탐구한 열정의 산물이다. 문방구 소년 켄타로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일까?

켄타로의 모친은 아들은 천재가 아니며 다만 집중력이 훌륭할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아이의 집중’을 장려하는 비결을 담고 있다. 집중할 대상을 찾아내고 창조력·의사 전달력·쓰기 및 그리기 능력을 저절로 자라나게 해 줄 37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개한다. 일상에서 간직할 소중한 순간들을 모아두는 습관은 아들인 켄타로에게 이어졌다.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노트, 뭐든 맘껏 그릴 수 있는 전용 화판을 만들어주었다. 형태화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돋보기와 노트로 구성된 ‘탐험 세트’로 산책 시간을 발견의 장으로 변신시켰다. 생각이 오고 가는 과정을 남겨두는 일도 필요하다. 가족에게 할 말을 남기는 ‘개인 코르크 보드 게시판’으로 자기 의견 전달 능력 높였고, 아이와 같이 매년 성장과정을 기록을 정해진 형태로 기록하는 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부모와 잠시 떨어져 주변을 돌아보고 심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추천하기도 한다. 책 후반부에는 더 발전된 내용이 제시된다.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 몰두하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얻는 기쁨을 깨닫게 함으로써 아이의 개인 세계를 넓혀주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쓰기’ 습관,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로 나아가길 기다려주는 자세가 아이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이가 혼자 집중할 대상을 찾는 일은 곧 ‘운명의 문을 발견하는 일’로 비유된다. 자녀에게 집착하지도 방치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재능을 꽃피울 기반을 닦아주는 일에 대한 책이다. 권말 해설처럼,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 욕구와 표현력을 활짝 피어나게 할 육아 철학이

돈보인다. 본인이 실행하여 효과를 입증한 생생한 자녀교육 노하우이므로, 한 번쯤 읽고 참고해 볼 만하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아들이 쓴 《문방구도감》

제 1장: 소중한 순간의 단편을 모아서

제 2장: 생각의 캐치볼을 남겨두고

제 3장: “즐기고 싶다!”로 세상은 커지고

제 4장: 자신의 세계를 점점 발전시키며

해설: 시오미 토시유키(시라우메가쿠인대학 학장)

마치며

<저자소개>

야마모토 카오리

《문방구도감》을 제작한 야마모토 켄타로의 엄마. ‘이시자카 카오리’라는 이름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다. 일상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생각들을 모아 새롭게 〈카케라쥬(*신조어)〉 작품도 제작하고 있다. 육아 에피소드를 〈엄마 대학 블로그〉에 집필하고 있다.

* 작품 사이트: <http://gekko.petit.cc>

* 엄마 대학 블로그: <http://www.okaasan.net/mj00172blog.php?itemid=36123>

No.20170118-007

제목: 일하는 의의를 발견하는 방법

저자: 코누마 다이치

페이지수: 27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9월 02일



<내용소개>

자기 앞에 놓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일의 의의를 찾는 과정

일본에는 유직(留職)이라는 말이 있다. 외국에서 지식을 배우고 돌아오는 '유학'처럼,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다. 유망한 직원을 신흥국가에 자원봉사처럼 파견해, 현지의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이해하고 글로벌 감각을 익히게 하는 인재 양성 과정이다. 유직자는 주로 해당 국가의 NPO법인이나 공적 기관에 취임하며, 본업에서 익힌 스킬을 살려 현지인과 협력하고 여러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 이런 활동은 글로벌 기업이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유직'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Crossfields'의 공동 창업자 및 대표이사인 30대 청년, 코누마 다이치다. 파나소닉, 히다치, 닛산자동차 등 유명 대기업들을 포함한 25곳 이상의 회사에 "민간기업버전 청년해외협력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100명이 넘는 비즈니스맨이 아시아 신흥국가로 파견돼 현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했다. 그는 큰 포부를 안고 사회에 나아간 청년생들이 몇 년 만에 열정을 잃고 지쳐버리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신-일-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상적인 근무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수궁할 수 있는 답변, 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자신과 일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자기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후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과 사회가 제대로 연결된 것이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저자가 청년해외협력대 활동을 하며 신념을 갖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4장부터 6장 전반부는 사회를 바꾸는 현장이 될 Crossfields의 창업에 얹힌 스토리다. 동료들과 힘을 모아 여러 갈등과 시련을 극복해내면서 '일'을 통해 신념을 실현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6장 후반부와 7장은 유직 프로그램의 실행, 뜻을 함께한 사람들, 실제 프로그램 참가자의 체험담 등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전한다. 일과 사회의 연결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 8장은 현실에서 활약 중인 리더들의 업무 방식을 통해, 다수의 비즈니스맨에게 참고가 될 힌트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눈 앞에 놓인 일을 기계처럼 받아들이 것인가, 주도적으로 일에 의의를 부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전자에서 후자로 발전하는 법을 알려줄 책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나의 일, 누군가의 무엇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제 1장: <사회를 바꾸는 현장>에서 발견한 소중한 것 -청개구리 정신과 청년해외협력대 참가

제 2장: 비즈니스 현장 최전선에서 배운 일의 방식 -맥킨지라는 프로페셔널 집단에서 철저히 배운 비즈니스의 기본

제 3장: 도전자와 응원자가 된다 -동료들과 만든 <열정의 보온병>이라는 시스템

제 4장: 생각에 형태를 만들기 위해 -창업 전야. Crossfields 출범을 향한 갈등과 분투

제 5장: <수직의 벽>을 기어오르다 -3월 11일의 퇴직 그리고 창업. 100전 전패의 기억

제 6장: 개인이 조직을 움직이는 순간 -<검푸름>으로 큰 조직을 움직인다. 성공은 <생각>의 힘×강인함

제 7장: 사회와의 연결>이 일하는 의의를 불러내다 -<유직(留職)>이란 이름의 리더십 여행

제 8장: 지금 이 곳을 <사회를 바꾸는 현장>으로 만든다 -비즈니스와 사회가 연결 후에 있는 것

<저자소개>

코누마 다이치

NPO 법인 Crossfields 공동창업자 및 대표이사. 1982 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청년해외협력대로서 중동 시리아에서 활동하였다. 귀국 후에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를 수료하고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서 근무하였다. 2011 년, 신흥국가의 NPO 에서 사회과제해결을 위해 <유직(留職)>하는 'Crossfields'를 창업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의 Global Shaper 에 선출되었다. 2014 년, 닛케이 소셜 이니셔티브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국제협력 NGO 센터(JANIC)의 상임이사, 신 공익연맹(사회과제 해결에 대처하는 NPO 와 기업의 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No.20170118-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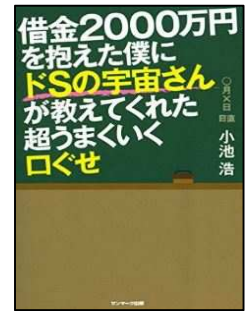
제목: 빚 2000만엔을 가진 내게 '도S (새디스트) 우주'가 알려준, 성공하는 말버릇

저자: 코이케 히로시

페이지수: 27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9월 12일



<내용소개>

'우주'가 알려준 말버릇 덕분에 삶이 180도 바뀌었다? 독특한 컨셉트로 제시하는 인생 교훈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고들 한다. 생각이 말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말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내면에 잠재된 비밀스러운 능력을 이용한다는 요지의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기점으로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언행이 인기를 끌었다.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갈리지만, 어쨌거나 말에는 의사소통을 하는 말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들 여기게 되었다.

이 책은 말이 발휘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을, '우주의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컨셉트로 풀어나간다. 저자는 12년 전 의류 가게를 열었지만 7년이 지나고 수중에 남은 건 2000만엔이라는 거액의 빚뿐이었다. 무허가 사채까지 손대면서 원금에 이자가 눈처럼 불어난 것이다. 법률 전문가도 파산 신청 외에 방법이 없다는 답뿐, 친구도 연인도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지만 보증을 선 부모님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던 순간, 눈 앞에 자칭 '우주의 사자'가 나타나 인생역전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9년 만에 빚을 모두 청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비결을 공개한다.

본문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을 나타내는 '코이케'와 까칠하면서도 은근히 자상한 도S (새디스트) '우주 씨' 캐릭터가 우주의 법칙을 대화 및 수업 방식으로 설명한다. 1부에서는 정말 기묘한 우주의 법칙을 다룬다. "안 될 거야""~하고 싶다" 같은 자학, 간청, 꿈을 말하는 듯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미 불가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바라는 기원과 결과를 명시한 '완료형'으로 우주에 오더를 내리듯 말하는 버릇을 익힐 것을 강조한다. 기적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스스로 세뇌하듯 하루에 500회 말하기, 시차를 이용해 새로운 주문을 세우기 등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2부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소한 말버릇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고작 이런 행동으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쓰인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판매 9만 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우주의 법칙'과 '운명을 바꾸는 말버릇'이라는 재미 있는 설정을 통해 독자에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용기,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목차소개>

1부: 참으로 이상한 우주의 법칙

("무리야, 할 수 없어", "역시 안 되는 걸까"도 모두 우주에 대한 주문이다! / 빛을 갇기 위해서 내가 중얼거리기 시작한 말 / 인생게임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 오늘 눈 앞에 놓인 세계는 역시 자기가 만든 것이었다! / 우주에서 온 힌트는 처음 0.5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아챈 순간 움직여라! 등)

2부: 우주는 끝까지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한다

(하얀 고양이를 안은 마담이 가져온 예상 외의 전개 / 도중에 끊고 들여보지 마라. 계속되는 것을 제대로 보라 / 우주는 반드시 '선 지불 법칙'으로 굴러간다 /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입금 말버릇' / 모든 사람, 사물이 1주만에 변하기 시작하는 주문이 있다 등)

<저자소개>

코이케 히로시

심리 테라피스트, 스피리츄얼 카운슬러, 마인드 코치, 파워스톤 코디네이터. 'Indigod' 센다이 대표. 12년 전, 어패럴 숍을 경영하기 위해 진 빛이 눈처럼 불어나 2000만엔에 이르고 자기파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 몰렸을 때,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냈다. 말의 힘을 사용하여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우주에 소망을 주문하면서 인생이 급변했다. 우주의 사자 <도스의 우주>가 보내주는 힌트를 지침으로 삼자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어패럴 숍을 철수하고 시작한 팔찌 가게가 TV방송에 나오면서 단숨에 화제가 되고 전국에 팬을 가진 인기 가게가 되었다. 9년 만에 빛을 완전히 변제했으며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사랑하는 부인 및 두 딸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손님에게 전하던 우주, 독자적 소망달성 방법이 입소문을 타서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으며 호평을 받고 있다.

No.20170118-009

제목: 5·6·7세를 위한 미로&틀린그림찾기

저자: 이치카와 노조미(감수)

페이지수: 11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02일



<내용소개>

재미있는 '미로'와 '틀린 그림 찾기'로 5~7세 아동의 지능발달을 도와줄 그림책입니다.

뇌세포 발달이 활발한 유아 및 아동기에는, 뇌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지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능은 곧 스스로 생각해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아내는 '사고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미로'와 '틀린 그림 찾기'를 통해 '도형/ 기호/ 개념' 세 분야의 사고능력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미로는 도형 추리력, 숫자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수학적 사고력, 지시하는 바를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그림의 위치와 크기 및 좌우 차이를 비교하며 도형을 보는 시각, 숫자와 색상 기호를 판단하는 능력, 틀린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총 92개의 문제에는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어 수준 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풀이 포인트를 게재해 아이가 답을 생각하는 즐거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즐겁게 노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판단력, 관찰력과 주의력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앞둔 5~7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적합합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이치카와 노조미(감수)

지능연구소 소장.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본인의 경험을 살려 지능교육소 소장으로 일하며 이론 연구, 교재 개발에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좌뇌+우뇌 시리즈>와 닌텐도-DS 소프트 <DS 유아 뇌 트레이닝>등을 감수했다.

No.20170118-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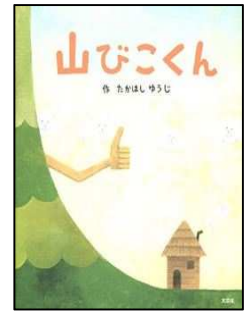
제목: 메아리

저자: 타카하시 유우지

페이지수: 36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2월 09일



<내용소개>

산 속 메아리, 메아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 "야호-"하고 외치면 이윽고 "야호-"하고 되돌아옵니다.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똑 같이 답해주는 것이 주인공 '메아리'가 하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메아리가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인간이나 동물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메아리는 그 규칙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누군가 산에 쓰레기를 버려도, 나무를 멋대로 베어가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아야만 했기에 슬펐지만 산기슭에 사는 친절할 할아버지가 대신 쓰레기를 줍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줬기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나무들이 잘려나간 산에서는 밤 중에 산사태가 발생해, 잠들어 있을 할아버지의 오두막 쪽으로 흩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메아리는 규칙을 깨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도망쳐요!" 할아버지는 메아리 덕분에 힘껏 달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에베레스트 산은 이번만 예외라며 메아리를 칭찬합니다.

규칙은 평소에 꼭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파스텔 풍의 그림과 스토리로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타카하시 유우지

1993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2015년 제16회 핀포인트 그림책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2016년 본 작품으로 문예사 출판문화진흥기금사무국이 주최한 <제10회 그림책 대상> 그림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